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3일 SRT 수서역에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참가한 지역·공공 캐릭터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

'캐릭터 판 프로듀스 101' 이 온다

문체부,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참가한 지역·공공 캐릭터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사 열어

'캐릭터 판 프로듀스 101'로 불리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참가 캐릭터들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지난 23일 SRT 수서역에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참가한 지역·공공 캐릭터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에 참가하는 7개 지역·공공 캐릭터 중 27일 현재 예선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반달이'를 비롯한 총 32개 캐릭터가 참여했다. 이들은 사진 촬영, 피켓 홍보 등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프로듀스 101'의 PICK ME(픽미) 커버 댄스 무대를 선보이며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영덕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은 "일본 유투카타(일본 지역·공공 캐릭터)가 전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공문서나 시달림에 새겨진 이미지에만 갇혀있지 않고, 직접 캐릭터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동네 캐릭터'도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들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지역·공공 캐릭터의 지속적인 활용을 독려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국민 프로젝트이다. 전국 7개 지역·공공 캐릭터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8개의 인기 캐릭터가 선정되며, 총상금 3000만 원과 사업화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한편 한편진은 보다 많은 지역·공공 캐릭터가 국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동네 캐릭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

익산시,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재개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관장 박광수)에서는 백제왕도 익산의 대표적인 유적을 해설과 함께 걸어서 답사하는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9월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과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가 공동으로 세계유산과 백제왕도 관련 유적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백제 무왕대 중요 유적을 6개 코스로 나누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전문가의 해설과 안내로 진행한다.

이번 9월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5일에 추진하는데, 최근 대왕릉에서 출토된 인골 분석 결과 백제 무왕릉의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보이는 익산쌍릉에 모여서 익산 토성, 미륵사지를 거쳐 구룡마을 대나무 숲, 서동공원 내에 있는 마한관까지 총 8km 정도를 걷게 된다.

걷기에 자신이 있는 학생과 일반인 8명 참가를 원하는 분은 28일부터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www.iksan.go.kr/wg)나 전화(☎859-4632)로 접수하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은 30명이다.

왕궁리유적전시관 관계자는 "이번 여행에서는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백제왕도 익산의 최근 발굴조사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노래로 만나는 사계절 한국여행'

지휘자 박상현의 더 모스트 보이시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노래로 만나는 사계절 한국여행' 공연이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8월 31일 오후 7시30분에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우리 귀에 익숙한 가곡 및 풍요 등을 선곡하여 가을이 다가오는 문턱에서 감미롭게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계절별 우리의 노래와 대한민국 방방곡곡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아 시각적 효과를 표현하였으며, 나라사랑에 대한 생각과 함께 공연을 통해 삶의 여유로운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휘자 박상현은 순수예술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새로운 공연 문화의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랑의 고장 남원, 로맨틱한 꿈의 콘서트

내일 춘향문화예술회관서 뮤지컬 명곡시네마속 클래식 무료 공연

무더위에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로맨틱한 꿈의 콘서트가 사랑의 고장 남원을 찾아, 수준 높은 뮤지컬 명곡과 시네마 속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남원시는 '문화가 있는 날' 8월 행사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끝판왕 콘서트' 공연을 29일 저녁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크로스오버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끝판왕 콘서트는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름다운 그림 영상과 화려한 영상미 무대를 압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中 지금이순간, 오페라의유령 中 ALL I ASK OF YOU,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中 LET IT GO, 알라딘 中 A WHOLE NEW WORLD, 국악 난감하네, 배 띄워라, 팔괘라, 국악, 뮤지컬 및 시네마 속 명곡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무료 공연이며, 공연 당일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620-6152)나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연/행사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2018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한국문화에



슬위위원회와 남원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크로스오버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1차 포럼

30~31일 국립고궁박물관서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오는 30~31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린다.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재)한국공공·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이 주관한다.

포럼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2018. 2. 3.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발표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30일 최성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은 국가계획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점을 발표한다.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 하남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 지자체 공무원과 연구원들은 각각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경력 관리를 지원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한 연구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31일에는 강성중 건국대학교 교수가 2017년에 개발된 공공디자인 교재를 기반으로 만든 표준강의안을 소개하고, 표준강의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공디자인 참여하기', '공공디자인 사업의 유형'에 대해 시범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범 디자인 평론가(과주 타이포그래피학교 소장)의 '지역 상징디자인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려면 진흥원의 누리집(www.kcdf.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9일까지 전자우편(iamkim@kcdf.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뉴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